



# 「한-걸프협력회의(GCC)\* 자유무역협정(FTA)」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

\* 걸프협력회의(Gulf Cooperation Council) :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, 쿠웨이트, 카타르, 바레인,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(GCC)와의 자유무역협정(FTA)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(www.fta.go.kr)에 공개하고,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.

\* 주요 경과: (23.12월) 협상 타결 → (24.2월) 협상 결과 국회 보고 → (~24.下) GCC측과 협정문 영문본 공동 검토·확정 → (~25.2월) 한글본 초안 마련

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,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「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」(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)에 따라 진행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.

이후 외교부, 법제처 검토 완료 후 GCC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,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.

- 【붙임】 1. 「한-GCC FTA」 협상 추진 경과  
2. 협정문 주요 내용
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	책임자	과 장	임국현 (044-203-5830)
	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희경 (044-203-5832)
	다자통상법무관	책임자	과 장	김세진 (044-203-5950)
	통상분쟁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이혜진 (044-203-5954)

- '08. 7월, 1차 협상 개시 후 '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\* 진행
  - \* 1차 협상('08.7월, 서울), 2차('09.3월, 리야드), 3차('09.7월, 서울)
  
- '10. 1월, GCC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 중단 선언
  - \* GCC 핵심국가인 사우디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 중이며 GCC-일본 FTA도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 상태에서 '10년 협상 중단
  
- '20. 12월, GCC 6개국 장관회의에서 '25년까지의 FTA 협상 계획 수립
  - \* 영국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중국, 파키스탄, 한국 등 우선 추진 결정
  
- '22.1월, 한-GCC FTA 협상 공식 재개 발표
  
- '22.3월 제4차 공식협상 개최(서울)
  
- '22. 6월, 제5차 공식협상 개최(리야드)
  
- '22. 10월, 제6차 공식협상 개최(서울)
  
- '23. 2월, 제7차 공식협상 개최(리야드)
  
- '23. 10월, 제8차 공식협상 개최
  
- '23. 12월, 한-GCC FTA 협상 최종 타결
  
- '24. 2월, 한-GCC FTA 협상 결과 국회 보고

□ (개요) 상품·서비스·정부조달·경제협력·원산지·통관·디지털무역·지재권·분쟁해결 등 총 17개 챕터로 구성

□ (상품) 전체 품목 중 우리 89.9%, GCC 76.4% 관세 철폐

- 우리 주력 수출품(자동차·부품, 기계류, 무기류) 및 유망품목(화장품, 의료기기 등) 관세 철폐

구분	자유화율		주요 품목 양허 현황
	품목수	수입액	
한국	89.9%	20.7%	천연가스, 석유제품, 알루미늄, 대추야자, 홍차, 나프타(50% 관세 인하)
GCC	76.4%	20.3%	자동차·부품, 기계류, 화학제품 및 무기류, 쇠고기, 조제식품 등

\* 금지 및 특별 관심품목(품목수 1.4%, 수입액 0.0%) : GCC 국가들은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품목(쌈담배, 산동물, 상아, 마약류 등) 및 특별관심품목(전자담배,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, 주류 등)을 운영

□ (서비스) 우리 관심 분야인 영화 배급 및 의료 서비스(병원 현지 개원 및 중동 환자 유치 등)에서 WTO 서비스 협정 대비 개방 수준 제고

-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 개선 등 통해 기업 애로 해소

□ (정부조달) WTO 정부조달협정(GPA) 비가입국인 UAE, 바레인과 GPA 수준의 비차별·투명성 원칙에 합의하고 상호 시장 개방

□ (원산지) 공산품, 석유화학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 마련

- 동물성 생산품 및 농축수산물 등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으로 합의

□ (협력) GCC 기체결 FTA 최초로 에너지·자원 분야 협력 포함 6개 주요 분야 부속서\* 도입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

\* 에너지·자원, 바이오경제, 스마트팜, 헬스케어, 첨단산업, 시청각서비스

□ (디지털)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AI, 중소기업 등 협력 요소를 규정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